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2차전지 (OVERWEIGHT)

시대60 – 미국의 블랙매스 전격 수출금지 영향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블랙매스에 대한 수출 전격 금지 27일자 전격 시행
- 블랙매스 정제 캐파가 없는 미국 재활용업체의 단기 병목 불가피
- 미국내 후처리 공급망 구축 필요로 한국 리사이클링 업체엔 기회

WHAT'S THE STORY?

들어가는 글: 시대(시장과의 대화) 예순 번째 주제는 어제(27일, 미국 현지 시간) 미국에서 시행하게된 폐배터리 중간재인 블랙매스에 대한 수출 금지와 그 영향에 대한 것입니다. 폐배터리 및 배터리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페스크랩을 전처리 해서 얻게되는 블랙매스는 리사이클링 통해 배터리 주요 원재료로 다시 활용될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한 자원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블랙매스에 대해 유해 폐기물로 지정하고, OECD 회원이 아닌 국가로의 반출을 막고 있는데, 이번 미국 정부의 규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이로 인한 한국 2차전지 리사이클링 업체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리사이클링 원재료인 블랙매스 수출을 전면 금지 시행하는 미국: 미국 정부는 핵심광물 공급 부족이 국가 방위와 안보 위협을 높이고 있어 회수 가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폐배터리 분쇄후 리사이클링 전단계에 있는 중간재인 블랙매스 및 텅스텐 스크랩의 해외 반출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자국 내 우선 공급을 강제하는 규정을 지난 8월 5일에 공포한 바 있음. 이 규정이 어제(27일)자로 본격 시행하게 된 것. 규제 기간은 1년간 한시 적용되는데, 이후 연장 또는 영구 규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짐. 이 규정에 따르면 블랙매스 및 텅스텐 폐기물 스크랩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월간 판매량의 100%를 미국 내 구매자에게 우선 배정해야 함. 해당 제품은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보국의 사전 승인 없는 한 해외 수출이 전면 차단되는 것. 다만, 과도한 사업상 손실 또는 해외에서 습식 제련 가공후 추출된 메탈을 다시 미국으로 전량 반입하는 조건 등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면제 조항이 검토되고 있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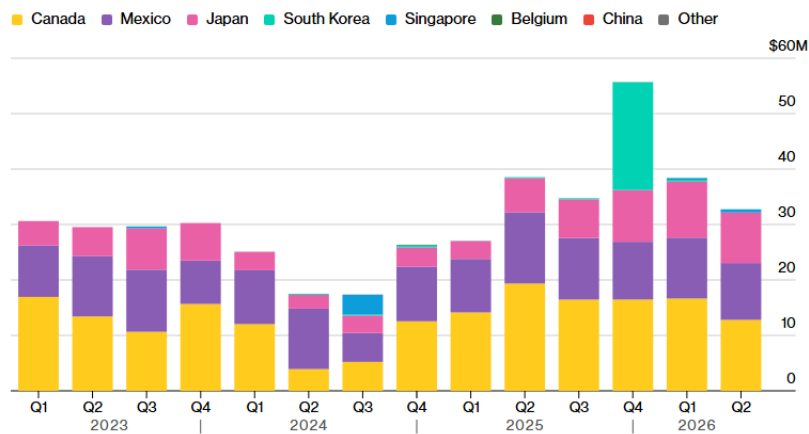
미국의 블랙매스 수출 제한 규정 시행

구분	내용
법적 근거	미국 국방물자생산법(DPA) 및 국방우선배분시스템(DPAS) 권한 기반
주무 부처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주요 규정 내용	1) 자국 내 100% 우선 공급 의무: 블랙매스 판매 사업자는 판매량 100%를 미국내 배정 2) 수출 금지: BIS 사전 승인 없이 수출 전면 금지 3) 예외 조건: 해외 습식 제련 후 추출 금속을 다시 전량 반입 조건 등에 한해 면제 검토
시행 시점	2026년 8월 27일 (공포 시점은 2026년 8월 5일)
시행 기간	발효일로 부터 1년간 한시 적용 후 연장 또는 영구 규제 여부 결정

자료: 언론보도 종합, 삼성증권 정리

정제 캐파가 없는 미국 재활용업체는 단기 병목 가능성: 미국 내에는 레드우드 머티얼즈, 아메리칸 배터리 테크놀로지 등과 같이 배터리를 수거하고 파쇄하는 재활용 기업은 있지만 해당 재료를 정제하는 능력은 부족한 상황. 따라서 대부분 재활용 업체는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BNEF의 배터리 폐기물이 포함된 무역 코드를 통한 수출 통계 인용 자료를 보면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산 배터리 폐기물 및 고철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고, 일본과 한국도 거래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번 조치로 인해 단기엔 블랙매스가 미국 외 지역으로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현지 블랙매스 업체들은 블랙매스를 소화하지 못하면서 병목 현상이 우려될 수 있음. 또한 그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블랙매스를 받아 후처리 해오던 해외 습식 제련업체들도 물량 감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미국의 폐배터리 및 배터리 스크랩* 시장별 수출 규모



참고: * 무역 데이터에는 기타 배터리 폐기물과 스크랩을 포괄하는 Schedule B 코드 8549.13, 8549.14 및 8549.19가 포함. 이들 코드에 포함된 모든 물질이 블랙매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자료: BNEF

한국 2차전지 시사점 - 중장기 역내 공급망 구축 필요로 국내 후처리 리사이클링 업체는 기회: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미국내 배터리 제조 캐파와 확대와 맞물려 증가하는 블랙매스를 후처리 및 전구체 합성까지 일괄 처리하는 공급망 투자에 대한 요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핵심 광물의 중국 등 경쟁국으로의 유출을 막으면서 '해외 가공후 재반입' 관련한 예외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후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 성일하이텍과 같은 한국 리사이클링 업체에는 처리 물량 확대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이슈로 판단됨.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8월 27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8월 27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2년간 목표주가 변경 추이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수정주가 기준)

성일하이텍				
일 자	2026/4/6	5/11	6/15	8/14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TP (원)	73000	92000	74000	54000
괴리율 (평균)	2.70	-34.42	-51.39	
괴리율 (최대/최소)	15.75	-23.04	-27.84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삼성증권은 기업 및 산업에 대한 투자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2023년 7월 27일부로 기업 투자 등급 기준 변경

기업

- BUY (매수)**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이상
그리고 업종 내 상대매력도가 평균 대비 높은 수준
- HOLD (중립)**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15% 내외
- SELL (매도)**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이하

산업

- OVERWEIGHT(비중확대)**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상승 예상
- NEUTRAL(중립)**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pm 5\%$) 예상
- UNDERWEIGHT(비중축소)**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하락 예상

최근 1년간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비율 2026.06.30 기준

매수(85.5%)·중립(14.5%)·매도(0%)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